

〈순교자 기념주일〉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 *송 영 / 찬양대
- *영 광 송 / 1장
- *성시교독 / 25.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이다.
지존하신 여호와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합성 중에 올라가심이어.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이다.
하나님은 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못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어.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1-9).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70장
- 대표기도 / (1부) 강현주 권사 (2부) 이상혁 장로
- 헌금봉헌 / 51장 (1절)
- 성경봉독 / 열왕기상 18:41~46
-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 말 씀 / **“작은 구름을 보라.”** / 전종남 목사
(Behold the Small Cloud.)
- 찬 송 / 545장
- 교회소식 / 인도자
- *파송노래 / 620장 (1절)
-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 찬 송 / 252장, 268장 기 도 / 이정숙 권사
- 성경봉독 / 레위기 16:1~8 찬 양 / 호산나찬양대
- 말 씀 / **“아사젤의 은혜”** / 전종남 목사
(The Grace of Azazel Scapegoat)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전종남 목사

- 찬 송 / 435장, 436장
- 성경봉독 / 디도서 1:1~4
- 말 씀 /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 / 전종남 목사
(A Person Who Has the Hope of Eternal Life)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예레미야 애가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권유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박영미 집사	윤성태 장로	임진수 안수집사

예배 위원

6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임진수 이영희 유경순
헌금	김신영	최승태 김영덕B 우말순 김정순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전종남(최경애) 김정순 김춘예 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인숙 최차순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라멜 김순천(연유희) 김영복 김영화 문상필 박재우(임윤지) 심상현 양병익(문미경) 엄상희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2번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민지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이혜숙 전주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주윤순 최근순 최인숙 하태호 한희숙 홍우표(윤명란) 무명2
선교헌금	전종남(최경애) 김경희 유병용(황하연)
구제헌금	전종남(최경애)
교육헌금	전종남(최경애) 정규식(이석란) 정해순 최인숙 최차순 *부서헌금: 유초-중고 *구역헌금: 1, 2, 4, 5 구역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6. 14.)

가장 복된 만남 (눅19:9~10)

전 종 남 목사

오늘은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성도는 물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을 경험한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며 큰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동족의 돈을 착취한다는 비난 속에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으로 영혼의 갈증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데다, 많은 사람에게 가려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체면을 내려놓은 채,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 멈춰 서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만약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와 그의 가족이 구원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9~10)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1)죄 사함을 받고, 2)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3)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永生)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손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죄 사함의 은혜와, 참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멘~.